

## 전남도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판매 농산물

# 절반 이상이 타지역産

### 부실계약 원인... 일부매장 개장 한달만에 사실상 폐업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도권 판매를 위해 설립된 전남도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가 다른 지역 농산물을 절반 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규정을 어기고 타 지역 농산물과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등과 허술한 계약을 다시 맺은 탓이다.

전남도는 뒤늦게 현장 점검과 협약 파기 등 법적 검토에 나섰지만, 개업 한 달 만에 폐업상태에 이른 매장이 있어 유통센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전남도는 "지난달 1일 개업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다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도 소유 땅에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주)이 건물을 지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참여한 이 유통센터(지상 5층·지하3층)는 지상 1층(770㎡)과 지하 1층(988㎡) 매장에서 전남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과 지난 7일 전남도의 현장 점검 결과 50~60%가량의 농산물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성산' '화순산' 등 지역명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전남도가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수도권 유통과 단체급식 등 활로 개척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유통센터 사업이 걸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전남산 농수축산물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팔 수 있다"는 협약서 일부 조항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협약 파기 등 강하게 업체를 압박하고 있지만 협약서가 허술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2010년 이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남산 농수축산물 판매' 조항을 넣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에야 '전남산 판매' 조항을 추가하는 등 계약을 졸속추진한 탓이다.

협약서에는 타 지역 농산물을 팔다 적발되면 한 달 동안 시정 기간을 주

고, 1년에 3번 이상 적발돼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강제 조항도 부실하다.

또 유통센터 초기 단계였던 2008년 전남산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수입 쇠고기를 팔다 적발됐던 업자가 버젓이 지하 1층 영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을 저지른 업자에게 다시 일을 맡기면서 규정도 허술하게 적용한 셈이다.

이 밖에 지상 1층은 '전남산 농수축산물 100% 판매', 지하 1층은 '공급이 어려울 경우 타 지역산 판매 가능'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해 지상 1층 매장은 폐업 상태에 이르는 등 유통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 떠나나 등 외국산 농산물도 팔 수 있는 지하 1층 매장으로만 소비자들이 몰려 지상 1층 매장은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허술한 유통센터 계약과 관리와 관련, 전남도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계약과 협약"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남도가 건물까지 매입해 책임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저 만큼 가을이...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處暑)를 나흘 앞둔 19일 광주시 남구 송촌동 지식강변에서 바라본 맑게 갠 하늘의 모습. 이날 광주의 낮 기온은 33.1도까지 올랐다. ▶관련기사 7면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새누리 대선후보 오늘 선출

### 박근혜 압승 예상... 민주 25일부터 순회경선

새누리당이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여야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5면)

19일 현재 여야간 승부를 점치기 힘든 안갯속 판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권 재창출에 나선 여당과 5년 만의 정권탈환을 노리는 야당의 대선 경쟁

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확실시된다. 박 전 위원장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태호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기호 순) 등 4인의 도전을 물리치고 70~80%대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위원장이 후보로 선출되면 우리나라 정당 사상 유례 정당의 첫 여성 후보가 된다. 박 전 위원장은 후보 확정을 계기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며 각종 해신과 화합 행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손학규·문재인·박준영·김두관·정세균(기호 순) 후보 5인이 대권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13개 권역을 도는 순회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50%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달 18일부터 23일까지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당내 지지율 1위인 문 후보는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4인의 후보는 결선투표 성사 후 뒤집기의 대역전 드라마를 쓰겠다고 버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 원서접수 : 8월 20일~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 원서접수 : 8월 6일~ 8월 20일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 50회 맞는 금남공원 광장음악회



지난 18일 오후 광주 금남공원에서 열린 '꿈꾸는 광장음악회'에서 관객들이 로고스 유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재능기부·자원봉사 만나 지친 도심에 클래식 단비

한낮의 폭염이 가시지 않은 지난 18일 오후 8시 광주 금남공원(옛 한국은행 자리). 자동차 마연과 경적소리로 가득한 도심공원에선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졌다.

'오케스트라, 광장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로고스 유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지휘 이창훈)의 '사랑의 인사'(에드워드 엘가곡)로 막이 올랐다. 수많은 빌딩과 차량들이 내뿜는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모이기 시작한 100여명의 관객은 '한여름 밤의 음악회'에 흠뻑 취했다. 우연히 금남공원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 계단에 앉아 잠시 더위를 달랬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하절기인 7~8월은 오후 8시)에 열리는 '꿈꾸는 광장(廣場)음악회'(광장음악회)의 풍경이다. 비록 화려한 공연장의 무대, 조명, 음향, 객석 등 '네가지 없는' 초췌한 자리이지만 음악회를 꾸미는 음악인들의 열정만큼은 그 어떤 블록버스터 공연 보다는 뜨겁다.

그도 그럴것이 다음달로 50회째를 맞는 광장음악회는 지역 음악인들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꾸러져 왔기 때문이다. 말이 50회이지 십사일반으로 '열린 음악회'를 지켜온 이들에게 50회 이상의 무게가 느껴지는 무대다. 특히 '야외 공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게다가 도심에서 열리는 정기공연이라는 점에서 '보석'같은 존재다.

광장음악회는 지난 2006년 10월 성악가 정찬경(바리톤)씨와 아내 한유진(공연기획자)씨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이탈리아 유학시절 밀라노의 탁 트인 광장에서 오페라를 즐기는 유럽인들의 일상에 감명 받은 정씨는 굳이 공연장에 가지 않더라도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야외음악회를 꿈꿨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문턱이 없는 '광장'을 찾던 중 마침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금남공원이 눈에 들어왔다. 100~200석 규모의 아담한 공간과 도심에 위치한 접근성은 정씨가 원하던 '최적의 공연장'이었다.

광장음악회는 매회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정씨 부부와 뜻을

같이한 동료 음악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지금껏 이어져왔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광주시로 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시름을 덜었지만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들 부부에겐 광장음악회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경비문제로 한달에 한번 열리다 보니 가까운 지인들도 종종 공연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오더라도 광장음악회는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해 장마시즌에 열린 '빛속의 광장음악회'는 팬들 사이에 '전설'로 남아있다.

가족들과 함께 음악회를 찾은 최세일(42·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광장음악회의 매력은 탁 트인 도심에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며 "연제든지 금남공원에 오더라도 이런 공연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

경부라인 표준 연비 및 용량 • E 200 CGI BlueEFFICIENCY 1,796cc, 1,642kg, 21.7km/ℓ, 11.6km/ℓ, 5.9ℓ/100km, CO<sub>2</sub> 배출량 202g/km • E 220 CGI BlueEFFICIENCY 2,143cc, 1,875kg, 21.7km/ℓ, 17.1km/ℓ, 11.9ℓ/100km, CO<sub>2</sub> 배출량 157g/km • E 300 ELEGANCE/AVANTGARDE 3,498cc, 1,775kg, 21.7km/ℓ, 9.2km/ℓ, 4.8ℓ/100km, CO<sub>2</sub> 배출량 254g/km • E 350 3,498cc, 1,790kg, 21.7km/ℓ, 10.3km/ℓ, 4.9ℓ/100km, CO<sub>2</sub> 배출량 228g/km • E 350 4MATIC 3,498cc, 1,800kg, 21.7km/ℓ, 9.5km/ℓ, 4.9ℓ/100km, CO<sub>2</sub> 배출량 246g/km • E 63 AMG S 6,000cc, 1,900kg, AMG SPEEDSHIFT 7ℓ/100km, 21.7km/ℓ, 8.0km/ℓ, 5.9ℓ/100km, CO<sub>2</sub> 배출량 294g/km • E 350 Coupé 3,498cc, 1,859kg, 21.7km/ℓ, 9.9km/ℓ, 4.9ℓ/100km, CO<sub>2</sub> 배출량 226g/km • E 350 Cabriolet 3,498cc, 1,800kg, 21.7km/ℓ, 9.4km/ℓ, 4.9ℓ/100km, CO<sub>2</sub> 배출량 246g/km ※ 이 표는 일반적인 도로 조건에서 측정된 것이며, 운전자의 운전 습관 및 운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